

【금년도 오카야마 성인식에 관하여】

지난 3일 연휴에는 각지에서 신 성인의 출발을 축하하는 성인식이 개최되어 저도 지난 1월 11일 오카야마시의 성인식에 참석했었습니다만, 한마디로 크게 실망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던 실행 위원들이 딱하게 여겨졌습니다.

오카야마 돔에서 개최된 식은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인 미야타니 유리아 씨의 인사로 시작했지만, 대부분 사람이 인사말은 뒷전으로 한 채, 중학교별로 그룹을 이루어 반가운 친구들과의 수다에 열중했습니다.

저와 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인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인사말 도중에 그들에게 주의를 시키며 청취를 촉구했지만, 식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심한 말은 삼갔습니다.

그 후, 인사를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니 성인식 참가자 중 한 명이 다가와 「시장님은 지나치게 친절하다. 이런 분위기에선 안 통한다. 더욱 엄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 라고 하고, 내빈들도 「이것은 마치 교육붕괴 그 자체」 라고 했습니다. 내빈으로 출석한 3명의 시 의회 의원으로부터는 잘 주의를 시켰다는 격려의 말씀도 들었지만, 뒷맛이 쓴 회장을 뒤로 했습니다.

또한,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으니, 산போ토 타카마츠에서 개최된 다카마쓰시의 성인식 모습이 비치어져 정연하게 식이 거행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건 장소를 포함한 식의 세팅 등 오카야마 측의 사전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이어져 재차 반성했습니다.

신 성인의 대부분은 평생의 추억이 될 성인식을 원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실행위원회 분들과 잘 상담하여 모두에게 기억에 남는 멋진 행사를 거행하고 싶습니다.